

배포 일시	2022. 12. 21.(수)		
담당 부서	국토정책관	책임자	과 장 장순재 (044-201-3662)
	지역정책과	담당자	사무관 나은종 (044-201-3669) 주무관 길선영 (044-201-3670)
보도일시	2022년 12월 22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2.(목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2022년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

-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, 주민 복지에 기여하는 우수사례 선정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지역개발사업의 우수사례를 지자체 간에 공유하고,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12월 21일(수)에 지역개발 우수사례 6건*을 선정하고, 지역정책 세미나를 실시하였다.

* (주거환경) 경남 남해군 상주학교마을 조성사업, 전남 함평군 나눔경로식당 조성사업 (관광) 강원 동해시 무릉별 유천지 조성사업, 전남 곡성군 중앙로 리본프로젝트 (산업·일자리) 경북 김천시 희망대로 건설사업, 전북 장수군 레드푸드 융복합센터

○ 지역개발사업은 「지역개발지원법」에 따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2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왔다.

○ 이날, 서면심사를 통과한 지자체의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지역정책 세미나*를 함께 진행하였으며, 차년도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공모방향 및 추진일정 등을 안내하였다.

* (주제) 지방중소도시 발전전략, 차별화된 지역개발 정책수립을 위한 전략방안 모색

□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개발사업을 ①주거·복지, ②관광, ③산업(일자리) 분야로 구분해 3건의 최우수사례와 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.

○ 선정된 지역개발 최우수사례 3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(전남 함평군) ‘함께먹는 대동면 나눔경로식당 조성사업’ - 주거복지 분야

- 함평군은 고령자 돌봄 환경을 만들고,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동면사무소 내 창고자리를 활용하여 고령층을 위한 경로식당을 조성하였다.
- 대동면 여성자원봉사회의 시설운동을 통해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노인 복지가 가능할 것이며, 단순 식사공간이 아닌 여가문화·노임쉼터 등으로 활용하여 마을 공동체의 거점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② (강원 동해시) ‘무릉별 유천지 조성사업’ - 관광 분야

- 동해시는 지난 50년간 석회석 채광을 통해 형성된 에메랄드빛 호수와 웅장한 석회석 절개지 등 이색적인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화 관광자원인 무릉별 유천지로 재탄생시켰다.
- 무릉별 유천지는 폐광지의 창조적 복구로 새로운 활용모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스카이글라이딩 등 액티비티 체험장, 드라마·방송 촬영지 로도 활용되고 있다.

③ (경북 김천시) ‘원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김천 희망대로 건설사업’ - 산업(일자리) 분야

- 김천시는 경북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두 지역을 연결하는 5.64km의 도로를 개설하였다.
- 희망대로 건설로 원도심 일대와 혁신도시 간 이동 소요시간을 25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되었고, 원도심 인근 대신지구 도시개발과 김천1일반산업단지 분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.

< 주거복지 >	< 관광 >	< 산업(일자리) >
		
<p>< 함평군 : 함께먹는 대동면 나눔경로식당 ></p>	<p>< 동해시 : 무릉별유천지 ></p>	<p>< 김천시 : 희망대로 건설사업 ></p>

○ 그 외에 우수사례 3건은 ①(주거복지) 상주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남도 남해군의 ‘보물섬 사시다 상주학교마을 조성사업’, ②(관광)섬진강 기차마을의 관광객 유입효과를 읍내상권까지 확장시키기 위해 중앙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전라남도 곡성군의 ‘감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앙로 리본 프로젝트’, ③(산업)지역특산물인 레드푸드 브랜드를 자원화시키기 위한 전라북도 장수군의 ‘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사업’ 이 선정되었다.

○ 한편, 최우수 및 우수사례로 선정된 6개 지자체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하고, 2023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.

□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“경진대회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성과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우수사례를 알려 지역개발정책 수립역량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”한다고 말했다.

